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성명	
전형	
수험번호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몽테뉴는 전문적 지식인들이 이론에 젖어 실천을 경시하는 것을 멸시했다.

“다른 사람들의 강력하고 위대한 지식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가는 남의 지식에 밀려서 자기 판단력은 짓눌리고 억압되어 오그라져 버리고 만다. 나는 식물은 수분이 너무 많으면 말라 죽고 램프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의 작용도 공부와 지식과 재료가 너무 많으면 숨뿌리가 막힌다고 말하고 싶다. 아는 일이 잡다하게 많아서 거기에만 사로잡혀 당혹해 버리고 사리를 풀어 볼 방법을 잃는다. 이 무게 때문에 학자는 허리가 굽어지고, 곱추가 되는 것이리라.”

이처럼 지식이 과도해지는 것을 몽테뉴는 비판한다. 그는 학자들이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판단력과 도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현명한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인데도, 이것이 잊혀지고 있다. 여기서는 더 많이 아느냐 하는 것보다 더 잘 아느냐 하고 물어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는 단지 기억을 가득 채우려고만 노력하고, 이해력과 양심은 빈 채로 둔다. 마치 새들이 모이를 찾으러 나가서 그것을 새끼에게 먹이려고 맛도 보지 않고 입에 물고 오는 것과 같다. 우리 학자님들은 여러 책에서 학문을 쫓아다가 입술 끝에만 얹어 주고, 단지 뱉어서 바람에 날려 보내는 짓밖에는 하지 않는다.”

몽테뉴는 사람들이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플라톤의 도덕이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라는 식으로 말하곤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은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앵무새도 이만큼은 할 것이다.”라고 비판한다. 즉, “지식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몽테뉴는 주입식 교육을 하는 선생을 비판하고, 학생을 자각시키는 교육을 주장한다.

“선생들은 마치 깔때기에 물을 부어넣듯 줄곧 우리 귀에 대고 소리친다. 이런 선생의 직책이란, 누가 이미 말한 바를 되풀이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선생들이 이 방법을 고쳐서, 그가 가르치는 아이의 능력에 따라 사물들을 음미해 보고, 먼저 자신이 선택하고 식별하여 보게 한 뒤 그 자질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어느 때는 그의 길을 열어주고, 어느 때는 학생 스스로가 길을 열어 가게 인도하기 바란다. 나는 선생이 혼자서 생각하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제자가 말하는 것도 들어주어야 한다.”

몽테뉴의 이러한 교육 방법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는 이 지적이 지금 우리 교육의 수준과 상황에 대해서도 그대로 비판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외워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이 주는 것을 기억 속에 보관해 두는 수작이다. 똑바로 안다는 것은 그 스승을 쳐다볼 것 없이, 책을 들여다볼 것도 없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 순전히 책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역량은 비참한 역량이다! 나는 그런 것은 장식으로나 쓰지, 기본으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교육에서는 욕망과 애정을 돋우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러지 않으면 책을 짚어진 당나귀밖에 만들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들을 매질해 주머니에 학문을 잔뜩 넣어 주지만, 학문을 잘하려면 그저 담아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 박홍규, 《몽테뉴의 숲에서 거닐다》



(나)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창의력을 말살하고 암기 위주의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창의력을 강조하다 보니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암기나 반복학습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나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장과 달리 창의력은 머리가 아닌 영등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작가나 연구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없는 반복 없이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어렵다. 이는 스포츠나 예능 분야뿐 아니라 공부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이다. 뇌과학자 장 디디에 뱅상에 따르면 “기억은 뉴런 집합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는 동일한 자극의 반복에 의해 강화된다. 즉, 학습은 반복과 동의어이며 기억한다는 것은 그러한 반복의 자취를 보존하는 것이다.” 굳이 뇌과학자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한자어인 학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울 학(學) 익힐 습(習) 즉, 배움의 핵심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익히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면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학생들이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했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 반복과 암기를 통해 익히는 작업을 해야 소화가 되어 자기 몸에 흡수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식이 쌓이고 생각의 근육이 튼튼해져 창의력이 발휘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아이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반복과 암기를 통해 개념과 용어를 익히면 이 각각은 지식의 바다에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낚아 올리는 낚시바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고기가 떼를 지어 지나갈 때 많은 낚시바늘을 담그고 있으면 한두 개만 담그고 있는 사람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고기를 낚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 동안 배우더라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또 모르면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속담은 아무리 바다에 고기떼가 넘쳐나더라도 낚시바늘이 달리지 않은 낚시대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이처럼 아는 것이 많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를 공부에서 나타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한다. 알파고처럼 우리 인간도 뇌를 외부 컴퓨터와 연결시켜 순간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수고롭더라도 노력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역량)을 길러야만 한다.

영등이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운과 웨디거는 “관련 기본 지식이 풍부해야 낯선 문제를 다루는 데 창의력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지식만 많고 창의력과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탄탄한 토대가 없는 창의력 역시 미래성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희정의 ‘하루키 스타일’에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창조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달리기를 하고, 일본에 있건 해외에 있건 매일 일정량의 원고를 쓰는 꾸준한 반복에서 나온 것이다. 하루키 스스로도 꾸준하게 반복하는 데에서 창조성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생생경영연구소 이병주 소장은 ‘모방은 나의 힘! 피카소’라는 SERICEO 강연을 통해 창조와 관련해서 모방이 갖는 이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방은 무언가를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반복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쉬워지며, 관련 지식도 쌓인다. 둘째, 모방은 자연스럽게 개선과 변형으로 이어진다. 이는 ‘주체가 돼서 활동하면 보이지 않던 것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고쳐야 할 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모방은 대상의 원리에 대한 커다란 깨달음을 준다. 모방을 통해 “분석적인 지식이 아니라 통합적인 통찰을 얻게 된다.” 이병주는 문학가들이 습작 시기에 베퍼 쓰기를 통해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스스로의 문체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모방이 가진 세 번째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완벽하게 모방하려면 수 없는 반복을 해야 한다. 즉, 창조의 원천인 모방도 영당이 힘인 것이다.

－ 박남기, <창의력은 영당이에서 나온다>

(다)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이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묻는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과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기계와의 경쟁이 아닌 공존과 공생이다.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서도 인간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 구분권,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문제 1-1] 제시문 (가)와 (나)는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제시문 (가)와 (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0점)

[문제 1-2] 제시문 (다)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를 다룬다. 제시문 (가) 또는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가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600(±200)자로 할 것.(30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실험연구란 연구자가 인과관계를 구성한다고 믿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을 선별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내적타당성(internal validity)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말한다. 실험연구에서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연한 사건(history)이다. 우연한 사건은 실험기간 중에 실험 외부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금연 껌이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 기간 중 청소년이 추앙하는 인기 연예인이 흡연 때문에 사망했다면, 이러한 사건은 피험자들의 흡연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숙(maturation) 요인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험자에 발생하는 내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실험 기간 중 피험자들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다면, 이들의 흡연이 증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편향된 선택(selection) 요인이다. 이는 피험자가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금연 껌의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에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참가한다면, 이들은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강한 금연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전술한 세 요인들은 금연 껌의 효과가 실제 효과에 비해 더 크게 추정되는 과대 추정의 오류를 초래하거나, 실제 효과에 비해 더 작게 추정되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초래한다.

(나)

금연 껌이 70세 이상의 고령층의 흡연을 억제하는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연구에서 학자 A와 B는 각각 다음과 같은 실험연구를 제안하였다. 학자 A는 금연 껌의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를 공고하고 이 실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층 흡연자들을 모집하였다. 학자 A는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모집된 흡연자들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측정했다. 이 학자는 피험자들에게 매달 금연 껌을 처방하고 처방에 따라 금연 껌을 섭취하도록 한 후, 1년 뒤에 피험자들의 흡연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학자 B는 실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층 흡연자들을 무작위적인 방법을 통해 금연 껌을 처방할 피험집단과 금연 껌을 처방하지 않을 통제집단으로 분류하고,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각 집단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측정하였다. 학자 B는 피험집단에게 매달 금연 껌을 처방하고 처방에 따라 금연 껌을 섭취하도록 하였다. 통제집단에 속한 흡연자들에게는 예산 부족으로 금연 껌을 처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1년 뒤에 실험에 참여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이 학자는 1년 후에 두 집단의 실험 참가자를 다시 소집하여, 두 집단의 평균 흡연량을 측정한 결과 피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흡연량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문제 2-1]

(나)에서 제시된 학자 A의 실험연구는 (가)의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까?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세 가지 요인들이 각각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 중 어떠한 오류를 초래하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2]

(나)에서 제시된 학자 B의 실험연구는 (가)의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까?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세 가지 요인들이 각각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 중 어떠한 오류를 초래하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